

'81년을 반성한다

(불황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다)

어쩔수 없이 또 한해가 기울고 있다. 채란업자에게는 정말 길고 긴 1년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작년 11월부터의 불황은 금년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보냈지만 금년은 사정이 좀 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오래도록 불경기가 계속되어야만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가 이 해가 가기전에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채란업계 규모가 전업화되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계사육규모는 점차 전업화 또는 기업화 되어가고 있어

3천수 이상의 농가가 75년 1,403호에서 금년 6월말에는 5,039호로 3.6배나 증가하였으며, 불황 중에도 이들 전업 내지 기업양계가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3천수 이상을 기르는 전업 양계가 전체 수수의 70%를 차지하므로 계란 가격도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으며 농가 부업양계는 거의 무시해도 되게 되었다.

이제 이들 5,000여 양계가족은(3,000수 이상) 불황 호황에 관계없이 생업으로 양계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과거와 같이 농가부업 양계 수수가 절대적일 때에는 경

단위: 가구

닭 飼育家口 규모의 변천

		飼 育 規 模 別 家 口									
		1~19 (首)	20~49	50~99	10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499	2,500~2,999	3,000 이상
1975	1,094,464	1,086,753	-	1,121	1,678	1,340	905	547	717		1,403
1976	1,236,771	1,211,776	15,852	1,312	1,794	1,582	1,052	641	627	301	1,834
1977	1,178,762	1,159,452	9,238	703	1,684	1,925	1,377	854	811	367	2,351
1978	1,172,054	1,150,325	9,082	790	1,634	1,822	1,629	1,182	1,286	581	3,723
1979	923,098	906,849	4,392	461	1,196	1,639	1,652	1,123	1,259	640	3,887
1980											
1980.9	770,235	751,840	7,004	531	831	1,263	1,413	990	1,272	621	4,470
1981.3	552,739	510,013	31,124	1,400	720	1,185	1,262	915	1,175	600	4,345
1981.6	692,472	642,638	37,320	1,632	859	1,128	1,202	948	1,065	641	5,039

단위 : 1,000 頭

규모별 사육수수의 변천

규모별	1975		1976		1977		1978		1979	
	마리수	비율 %	마리수	비율 %	마리수	비율 %	마리수	비율 %	마리수	비율 %
1~99	5,882	28.2	6,469	24.5	5,492	18.2	5,534	13.5	3,839	9.4
100~499	413	1.9	469	1.7	427	1.4	388	0.9	308	0.7
500~999	924	4.4	1,086	4.2	1,324	4.3	1,248	3.0	1,126	2.8
1,000~1,999	1,916	9.2	2,218	8.4	2,939	9.8	3,743	9.2	3,659	8.8
2,000~2,999	1,609	7.6	2,091	7.9	2,617	8.7	4,184	10.3	4,272	10.4
3,000~4,999	2,601	12.4	3,128	11.9	4,228	13.9	6,639	16.3	6,979	16.9
5,000~9,999	2,800	13.4	4,115	15.7	5,238	17.5	8,325	20.4	8,792	21.4
10,000以上	4,795	22.9	6,748	25.7	7,908	26.2	10,694	26.4	12,148	29.6
計	20,939	100	26,325	100	30,224	100	40,753	100	41,120	100

(1979年家畜統計)

기가 조금 나쁘면 닭들이 처분되어 바로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이제는 불황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계란과 닭고기의 농장 판매가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는 한때 계란 한줄로 쌀한말을 구입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계란 1개 값이 시내버스 요금이나 연탄 1개 값과 항상 같았었는데 이제는 계란 3개 값과 비슷하게 되었다.

계란이 이들 상품에 비해 3분의 1로 평가절하된 셈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란가격은 일반 도매물가 상승율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이다. 다른나라에서 양계산업은 그동안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극복하고도 이윤을 남겨 재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지난 5년을 돌이켜 볼때 거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이에대한 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으나 그간 사육여건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작년 사료가격 자율화이후 부로일러 사료에

서는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란계에서는 품질개선보다는 가격 경쟁으로 치우쳤고, EDS'76(산란저하 증후군)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환우의 보편화로 생산성이 떨어져 더욱 경영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도매물가가 2.8배 상승한데 비하여 계란값은 1.7배로 생산비 절감 없이 양산업이 지탱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수 있다.

환우의 보편화는 불황을 장기화 한다.

74년 정부에서 외국 종계 수입금지 조치로 비싼 초생추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종계업자는 환우를 시키고, 양계업자는 병아리 구입이 어려워 환우를 시작해 환우에 대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 보급되었다.

본지도 환우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지만 종계의 환우에서 이제는 산란계도 환우를 해야하는 것으로까지 보편화되었다.

비싼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에서나 환우하는 것에서, 소비자들의 특란 선호 때문에 특란과 대란 가격차이가 커지자 실용계도 환우를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노폐계 값이 싸기 때문에 환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된다.

이제는 재환우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계란

값이 떨어지면 환우시킨다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가고 있다.

계사를 비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특란 가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초생추육성의 불편과 노계가격의 하락 등으로 환우 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깊은 고려와 환우 프로그램 선택에서도 그저 털갈이가 목적인 것처럼 가볍게 지나쳐 버려 환우기술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더욱큰 문제는 환우가 보편화 됨으로 자기 한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말 채란업계에 불황이 시작될 때 이 불황을 막기 위해 환우를 장려한 결과를 우리는 거울삼아야 될 것이다.

얼마전 외국의 양계 전문가가 본회를 방문하였을 때 외국의 불황대처 방법을 물어 본적이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과잉생산분

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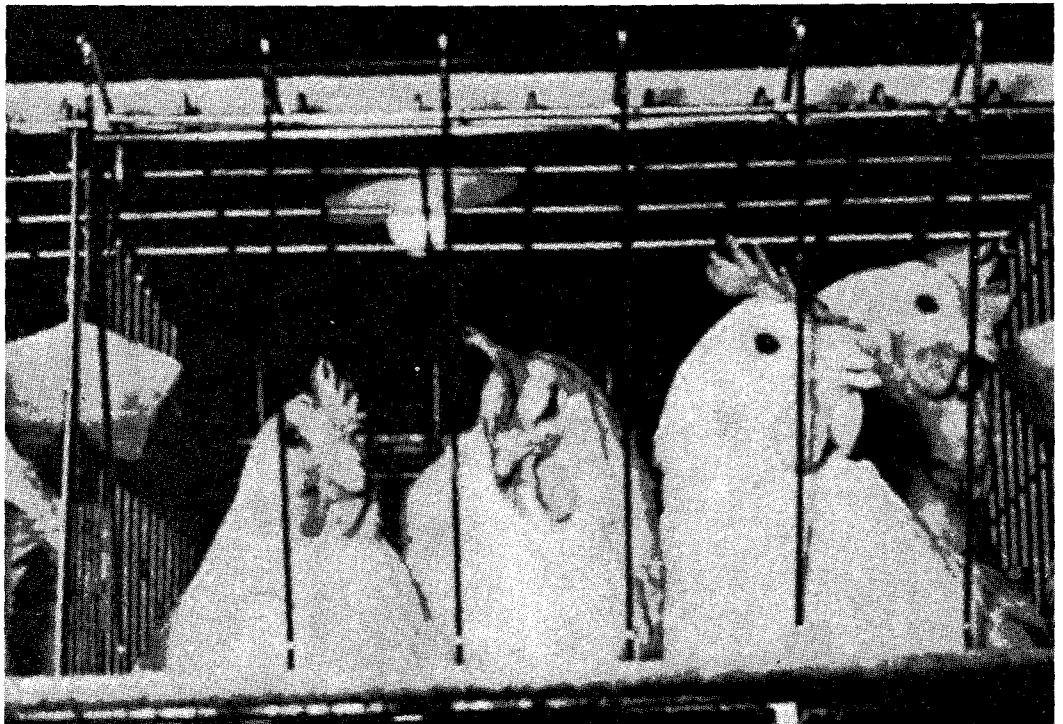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수매, 비축 가공 등 많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 재고 때문에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아 양축가의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도 과잉생산이 되면 닭수수를 도태하여 빨리 회복시키고 도태된 빈 계사에 새로 병아리를 입식시켜 신계로 대체함으로써 항상 높은 산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계(新鷄)의 입식은 부화장에 활력을 주었고 식란으로 처분될 종란을 병아리로 변하게 하여 계란값 회복을 더 빠르게 하였다.

가격하락→환우→종란의 식란처분→다시 산란→다시 하락→다시 재환우의 연속으로 불황은 길어질 수 있다.



이제 환우계의 난중이 초산계보다 무겁고 특란과 대란의 가격차가 심해서 산란율은 떨어지지만 계란상인이 특란을 원하기 때문에 환우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우후의 사료 효율이 나빠지는 것 등을 려하여 세밀한 계산후에 환우를 해야할 것이다.

시험에 의하면 첫째의 산란계보다 환우계가 계란 개당 15.1g에서 26.5g, 또는 30.3g 까지 더 많이 사료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환우계가 3원 내지 6원 계란개당 사료비가 더 소요된다는 뜻으로 된다.

파주의 P농장은 노계값만 좋으면 주령에 관계없이 도태하고 신계로 대체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평택의 K농장도 이러한 방법으로 년중 80%이상의 산란율을 유지하여 불황을 이겨 나간다는 실례를 우리는 음미할 필요가 있다.

계란 가격 형성의 문제점

채란 양계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로 발전한 원인 중에는 생산물의 값에 고하는 있을지라도 생산만 해 놓으면 재고없이 알장사가 모두 현찰을 주고 사갔었기 때문에 양계농가는 생산만 하면 다른 판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78년 수요가 폭증하자 으레 계란상인은 양계장에 몇백만원 또는 그 이상의 보증금을 갖다 맡기는 것이 상식화되어 왔다.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와도 값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체화되는 물량소비는 알장수들이 걱정할 문제이었다.

값이 떨어지면 상인측에 계란 재고가 증가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 리어커, 광주리, 부대 등이 주책가에 나타나 계란소비가 증가하고 체화된 물량은 처분되어 갔다.

상인들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체하되어도 농장의 체화는 없었다.

이때의 계란가격 형성은 상인들이 주도하였다.

생산자들은 상인들이 계란가격을 주도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단합하여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재값을 받자는 운동이 일어나 양계인들이 조직을 만들고 대표를 뽑아 가격을 정하여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생산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후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생산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년에 계란가격과 유통이 대개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계란값이 오를 땐 상인 쪽에, 체화될 땐 양계장에 계란이 모인다.
2. 값이 오를때나 내릴때나 50전, 1원이 아닌 4원씩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소폭조정 때는 주에 몇차례씩 조정된다.
3. 생산자와 상인간의 의견 조정이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실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4. 생산자의 수가 많아 행동통일이 어려운 데 비해 상인은 그 반대다.

이상 몇가지들은 당초 예상되었던 것들이고 이에대한 보완대책이 채란양계의 안정화 방안으로 본지에 수차 게재된 바 있다.

계란가격의 진폭이 크다는 말은 소비를 위축시켜 생산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었고 너무 예민한 가격 조정은 가정 판매(광우리, 리어커)상의 출현을 막아버려 그만큼 소비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계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엔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이 119개로 되어 있다.

당초 계획은 80년에는 146개쯤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계획량의 81.5%에 그치고 말았다.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육류중 쇠고기가 2.78배, 돼지고기가 2.42배 증가하는 기간에 닭고기는 1.75배, 계란은 1.7배로 쇠고기의 63.1% 및 61.4%에 그치고 있다. (WPSA-K자료)

양계 산업 기금의 필요성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닭고기와 계란소비 증가율이 위축되기 때문에 계란소비 홍보를 해야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자고 금년여름에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있었는데 당초 홍보사업,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에 사용하

년도별 계란 및 부로일러 가격지수 (농장출하가격)

	(대란) 계란	(하이) 닭고기	도매물가지수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서독	자유중국
1971	51.0	43.9	45.7	63.3	69.6	59.0	77.0	58.4
1972	51.5	45.9	52.0	63.8	71.7	62.1	79.0	61.0
1973	62.2	65.5	55.6	73.9	78.3	66.7	84.2	74.9
1974	78.3	84.8	79.0	97.1	90.3	81.8	95.5	105.3
1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6	100.8	119.4	112.1	105.0	104.2	117.3	103.7	102.8
1977	110.2	136.6	122.2	107.0	110.5	140.5	106.5	106.6
1978	126.3	140.6	136.5	104.3	119.1	153.3	107.8	109.3
1979	117.3	117.2	162.1	111.9	132.1	172.0	113.0	124.5
1980	146.2	176.8	225.2	131.8	149.7	200.0	121.5	151.3
1981.8	171.9	223.0	284.0	135.7	165.5	223.9	133.2	162.7

우리나라 肉類 消費 패턴 1人當 kg, 혹은 個

年度別	GNP \$	牛肉	豚肉	鷄肉	總肉類	鷄卵
1969	208	1.06	2.42	1.36	4.84	65
1970	235	1.17	2.60	1.42	5.19	75
1971	266	1.22	2.49	1.54	5.25	76
1972	293	1.24	2.67	1.68	5.59	86
1973	363	1.37	2.69	1.58	5.63	76
1974	483	1.54	2.75	1.60	5.89	83
1975	531	1.99	2.80	1.58	6.37	82
1976	700	2.11	2.95	1.70	6.75	85
1977	864	2.24	3.88	2.01	8.12	97
1978	1,279	3.10	4.81	2.20	10.10	101
1979	1,624	2.96	5.87	2.38	11.21	111
增加比 (69~79)		278%	242%	176%	232%	171%
價格上昇比 (69~79)		600%	532%	334%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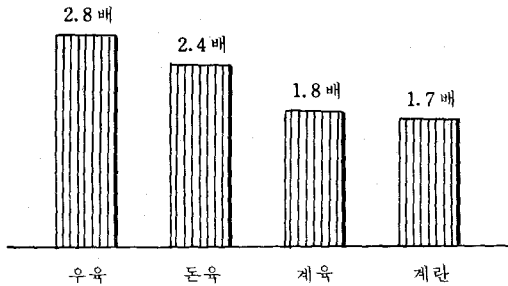
배합사료 생산 추세

(단위 : M/T)

區分 年度別	養 鷄 用			小 計	養 豚	酪 農	肥 育 牛	其 他	計	增 加 率
	育 雛	產 卵	肉 鷄							
1967	(14.7) 15,779	(65.0) 69,688	(1.8) 1,873	(81.5) 87,340	(7.7) 8,246	(4.3) 4,579	-	(6.5) 7,091	(100) 107,256	100
1968	(25.2) 56,411	(56.8) 126,782	(2.4) 5,295	(84.4) 188,488	(6.5) 14,671	(3.5) 7,659	-	(5.6) 12,496	(100) 223,314	208
1969	(10.8) 39,815	(64.2) 235,763	(7.4) 7,134	(7.4) 302,712	(7.2) 26,512	(3.7) 13,489	-	(6.7) 24,805	(6.7) 365,518	343
1970	(14.5) 73,630	(62.3) 316,437	(13.7) 69,631	(90.5) 459,698	(2.0) 9,917	(3.8) 19,333	-	(3.7) 18,616	(100) 507,564	473
1971	(12.4) 86,963	(60.9) 427,285	(14.0) 98,905	(87.3) 613,153	(2.8) 19,919	(4.7) 33,186	(1.0) 7,184	(4.1) 28,668	(100) 702,110	655
1972	(12.4) 96,422	(55.9) 434,202	(14.9) 115,704	(83.2) 646,328	(6.2) 48,317	(6.8) 52,980	(0.8) 6,194	(2.9) 22,417	(100) 776,236	724
1973	(12.3) 111,751	(49.3) 448,843	(13.7) 124,736	(75.3) 685,330	(13.4) 121,822	(9.1) 82,544	(0.6) 5,412	(1.6) 14,512	(100) 909,620	848
1974	(9.9) 92,194	(62.8) 382,243	(8.6) 79,996	(59.8) 554,433	(20.4) 183,828	(13.2) 122,409	(4.9) 45,347	(1.7) 16,153	(100) 927,170	864
1975	(11.6) 104,202	(41.2) 371,370	(10.3) 92,334	(63.1) 568,566	(15.0) 133,505	(16.7) 150,671	(3.7) 33,495	(1.4) 12,758	(100) 900,995	840
1976	(12.5) 173,314	(39.5) 547,354	(10.7) 148,150	(62.8) 867,818	(15.0) 207,074	(12.5) 173,004	(3.2) 43,549	(6.5) 90,081	(100) 1,381,526	1,289
1977	(11.6) 219,089	(36.8) 697,274	(12.7) 240,561	(60.9) 1,154,924	(18.5) 350,236	(14.0) 265,707	(5.0) 95,528	(1.7) 32,295	(100) 1,895,690	
1978	(11.3) 304,753	(32.8) 882,076	(16.8) 451,725	(60.8) 1,638,554	(18.5) 498,110	(11.9) 320,728	(8.7) 233,088	(0.1) 2,625	(100) 2,693,105	
1979	(8.5) 330,230	(29.4) 1,141,449	(14.7) 571,890	(52.7) 2,043,569	(29.1) 1,129,895	(11.3) 438,512	(6.9) 266,206	(0.05) 2,053	(100) 3,880,235	
1980	(8.5) 295,801	(32.5) 1,126,470	(13.0) 449,594	(54.0) 1,871,865	(22.2) 769,372	(14.8) 513,667	(8.8) 306,337	(0.04) 1,335	(100) 3,462,576	
1981.1	20,978	84,177	32,637	137,692	54,620	40,195	30,181	29	262,717	
1982.2	15,490	79,338	30,144	124,972	42,590	31,628	24,300	92	223,582	
1981.3	16,286	96,105	36,783	149,174	48,279	36,716	23,809	33	258,011	
1981.4	17,311	92,785	39,770	149,866	50,901	37,316	27,113	36	265,282	
1981.5	20,306	94,744	47,891	162,941	60,201	39,835	29,577	139	292,693	
1981.6	19,296	93,813	50,784	153,893	56,802	36,985	26,662	114	274,456	
1981.7	19,685	80,870	51,640	152,168	58,938	35,433	31,739	86	278,364	
1981.8	19,265	84,360	51,749	155,374	70,860	40,674	40,905	74	307,887	
1981.9	21,169 (6.5)	88,511 (27.1)	53,849 (16.5)	163,529 (50.1)	75,803 (23.2)	42,080 12.9	44,681 (13.7)	174 (0.05)	326,2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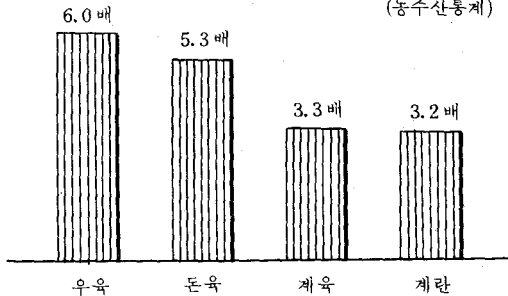
1) 1969 - 1979 10년간 육류소비상황

(농수산통계)



2) 1969 - 1979 10년간 축산물가격 증가대비

(농수산통계)



기로 한것에서 체화된 물량의 수매비축에 까지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어 만병 통치약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가는 듯한 느낌도 주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계란과 닭고기가 값은 가장 안오르는데 소비는 가장 증가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 교육에 전혀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값이 6배나 오른 쇠고기는 소비가 2.8배 증가한 데 비해서 도매물가 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겨우 3.2배 증가한 계란의 소비는 1.7배 증가하였다.

닭고기와 계절 소비 홍보 시급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계산업이 주도하여 왔으며 70년도에는 양계사료가 생산량의 90.5%로 우리나라 사료공업을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채란업계의 불경기가 곧 축산업의 불경기로 생각되어졌고 곧바로 사료업계에 이어져 왔다.

산란제사료는 이제 전체 배합사로 생산량 중 27% (81.9)에 불과 하며(한때는 67년 65%, 71년 61%) 하나의 사양산업화 하고 있는 느낌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 주고,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계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며, 자라나는 2세 들에게 계란이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우수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계속하는 길만이 채란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계란을 사용한 식품개발이나 소비홍보를 위해 양계 안정기금은 꼭 제도적으로 적립되어야 되겠다. (노영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 한다.

세원사료 (주) 천안 (2) 8001~5
서울 (713) 2205~6